

건강 칼럼

동물의 탄생에너지

**수** 화기제(水火既濟)는 자연에서와 달리 물 즉, 음(陰)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고 불, 즉 양(陽)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와 음과 양 에너지가 만나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발현하는 것이다. 이런 자연이치의 좋은 예로 달걀의 부화를 들 수 있다. 닭은 알을 품어서 부화시킨다. 달걀은 단단한 껍질 속에 수분 즉 수(水) 에너지가 많은 흰자와 노른자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단단한 성질의 금(金) 에너지가 많은 껍질 속에 수 에너지가 많은 흰자가 있다(金生水). 수 에너지가 많은 흰자 속에 노른자에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불의 성향을 가지는 목(木) 에너지가 많다(水生木). 이러한 달걀을 아미 닭이 품어주면 아미닭의 따뜻한 체온인 열에너지 즉 화(火) 에너지가 품어주는 시간만큼 달걀 속의 흰자의 수 에너지를 자극하여, 생명력의 상호(相生) 에너지를 발현시킨다. 이렇게 생성된 상호 에너지는 노른자를 자극하여 새 생명이 탄생되도록 한다. 난생과 달리 태생은 생명력의 상호 에너지가 많은 체내에서 난자



김현  
전주대학교 교수

에서도 똑 같이 일어난다. 거북이는 바다에서 모래사장에 올라와 구멍이 틀 파고 알을 낳은 다음 잘 덮어 놓는다. 거북이 알은 따뜻한 모래의 열에너지를 일정시간 받게 되면 달걀처럼 부화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이치로 보면, 사람과 같은 태생 동물의 임태와 출산 과정도 달걀과 거북이 알과 같은 난생과 같다. 태생을 하는 동물들의 경우 난자에는 껍질이 없기 때문에 알갇의 몸속에 있고, 정자가 다가 수정이 필요로써 임태가 된다. 여기서 난자는 알갇처럼 흰자와 노른자로 구성되어 있다. 난생과 달리 태생은 생명력의 상호 에너지가 많은 체내에서 난자

인 음에너지와 정자인 양 에너지가 만나 수정이 되고, 체온의 열에너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게 된다. 태생을 하는 동물들은 몸의 체온이 거의 일정한 정온 동물로서 상호 에너지가 아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 또한 강하다. 이렇게 임태가 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탄생을 하게 된다. 알은 통상 상대적으로 몸이 뜨거운 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낳게 된다. 닭은 하늘을 나는 조류로서 동물 중에서 화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거북이는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므로 몸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자신의 몸이 뜨거워서 알은 단단한 껍질의 금 에너지와 그 속에

수 에너지를 가득 채워야 한다. 이것이 음과 양 에너지의 조화이다. 같은 알이라도 단단한 껍질이 없는 것은 어류의 알이다. 어류는 알갇이 난을 체외로 배출시키고 수컷이 알들 위에 정자를 방사하는 방법으로 체외수정을 한다. 어류의 알은 두 개의 층으로 된 난막이 덮고 있다. 난막 안에는 무색투명한 원형질과 무색의 노른자가 있다. 난막에는 상대적으로 금 에너지가 많이 외부로는 수 에너지를 막고, 안쪽 원형질의 수 에너지와 노른자의 목 에너지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자는 이 난막을 뚫고 노른자와 수정을 완성한다. 이때 적절한 수온에서 주는 열에너지에 힘입어, 음 에너지인 알과 양 에너지인 정자가 만나 음양의 힘을 이룬다. 그러므로 어류가 탄생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열 에너지의 수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어류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오르는 시기에 산란한다. 이렇게 모든 생명의 탄생은 음과 양에너지의 조화에 의해 탄생한다.

사설

새만금개발청의 변화 기대 커

새만금개발청에 할 말이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 주문했던 것이니 새로운 언급은 아니다. 사업을 이끌고 있는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이제 우리 쪽 이익도 생각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업체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쪽과 먼저 협의해야겠다. 그리고 전북도도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진할지 사전에 그 방향을 연구해두어야겠다. 다시 말하거니와 새만금 사업은 달라져야 한다.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인데도 지역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던 까닭이다. 사업 초기부터 그랬으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만금개발청은 발상의 전환을 보여야 한다. 예전 방식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거나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북도와 정기적으로 생각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발전을 위한 상투마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전북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인가

를 늘 중심 주제로 삼아 달라는 당부이다. 이번엔 새만금개발청 쪽에서 예전과 다른 소식을 들려줘 바란다.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에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 비율이 크게 높아질 거라는 보도가 그것이다.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는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발주하는 것이기에 그 보도에 신뢰가 간다. 그래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여기 새만금개발청에게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이처럼 도민의 여망에 부응해 달라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7월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발표할 바 있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였을 터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애쓰는 모습이 앞으로도 것처럼 꾸준했으면 한다. 새만금 개발청이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 기여할 부분들을 찾아 주었으면 한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전북지역의 건설업체들에게 20%가 넘는 기회를 확실히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전북도, 거주인구 감소에 주목해야

전북도는 도내 인구 상황에 주목해야겠다. 185만 명선이 무너질 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도 문제지만 높은 지역의 이농 현상과 젊은이들의 출향 행렬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거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도내 인구 상황과 관련해서 열릴 줄 알면 긍정적인 말이 흘러나올 때가 있었다. 인구 감소세가 둔화됐다는 말이 그것이다. 열릴 줄 알면 그것은 긍정적인 말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말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긍정적이지 않음이 분명했다. 인구 감소세 둔화에 의지해 시간을 벌기에는 도내의 제반 상황이 예전보다 안 좋다. 전북도는 도내 거주 인구의 동향에 대해서 보다 정직해야 한다. 갈수록 도내 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음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반기지 않는다. 지난 10년의 통계를 종합해보면 도내 인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가 있다. 자연 증가는 1만2천 명 수준인데 유출 인구는 3만8천 명 수준이었으니 말이다. 지금 전북도내 거주 인구 상황

에 주목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일자리들이 증발했고 또 증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군산 현대조선소의 폐쇄에 이어 군산 지엠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전주 시와 완주군을 제외하면 각 시군의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현재 완주군의 인구가 남원시의 인구보다 많은데 상식과 맞지 않다. 오래된 읍이 두 개나 되는 완주군이 남원시보다 인구가 많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남원시 관계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인구 감소세 둔화를 말할 게 아니라 인구 증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이 앞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우선은 일자리 마련에 힘의 집중이 있어야겠다. 노인 일자리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지원도 있어야겠다. 도내의 취직을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챙겨줘야 한다.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눌러 살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전북도가 인구 감소 조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참으로 많다.

독자제언

당황하지 않으면 보이스포싱 예방 가능

얼마 전 영화 속 '콘에어'처럼 한국인 범죄자 47명이 탄 비행기가 필리핀을 이륙해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두 배가 넘는 배데라 형사들의 밀착 호송으로 영화처럼 반전은 없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반전이려면 범죄자 도피 천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필리핀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4년 33명, 2015년 47명, 2016년 84명의 범죄자를 해마다 감찰씩 불러 붙잡아 온 것쯤 되겠다. 그날 호송해 온 47명 중 28명이 보이스포싱 범죄 일당인걸 보면 국가가 보이스포싱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알 수 있겠다. 요즘 유령의 복고풍 마냥 가족납치 보이스포싱 신고가 심심찮게 들어온다. 신고자의 현명함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로 더 이상의 피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살려달라고 비명 치는 전화기 속의 그 늑목소리조차 가족 목소리를 닮았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이스포싱 범죄는 한결같이 전화기를 이용하면서도 사람의 심리를 교묘

하게 교란시키는데 특출하다.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가족납치나 금융정보 노출, 범죄 연루 등 미치신상에 큰 화를 끼칠 듯 구미호의 재주로 똥짓돈을 빼가려는걸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제아무리 그럴싸한 사기 보따리를 풀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할들 정신만 차리면 현대판 호랑이 굴에서조차 생존할 수 있음을 숙달해서 배울 수 있겠다. 이럴 경우에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조력을 받고 범죄의 확산을 차단한다면 범죄는 예방이 최선인 사회적 방어시스템까지 가동시킨 셈이겠다. 보이스포싱 범죄 일당의 콘에어 탐승은 사후 책이 가깝다. 엄청난 노력과 시간 투자로 거둔 일망타진이 가져다 준 통쾌감은 피해회복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빛바래기 십상이다. 결국, 퇴치 노력과는 별개로 진화하는 보이스포싱에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뉴스를 통한 정보습득과 더 붙여 절대 당황하지 않는 당당함을 연습해 두어야겠다. 조남이 군신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독자제언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통한 가정폭력예방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경험을 가진 기혼 여성과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는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 보호이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보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꺼려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판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적합하다. 직접 거주지 또는 현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의 명령에 의해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지·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족구

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기본 6개월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가해자는 이를 위반할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에 대해 법률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한국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무료로 받을 수도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사회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큰 충격을 주는 만큼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꺼리는 경우라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재발방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